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플럼 설기현 “이적 축포 쏜다”

**이영표, 아스널전 주전경쟁 시험무대**  
**이동국, 후반 조커 ‘짜릿한 한방’ 기대**

허리부상 악재를 뚫고 플럼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설기현(28)이 짜릿한 ‘이적 자축포’를 노린다.

설기현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예정된 위건 애슬레틱과 2007~2008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6차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막바지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중순 갑작스런 허리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설기현은 플럼으로 ‘깜짝’ 이적한 뒤 이번 주 내내 로리 산체스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 팀 훈련에 열중했다.

산체스 감독은 “이번 주 훈련을 모두 소화해 경기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건전 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은 것은 당일 선발출격 명령을 받는 일. 설기현으로서도 자신을 ‘멀티플레이

어’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감독의 신임을 얻기 위해 빨리 골 맛을 봐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팀 적응력이 뛰어난 설기현은 지난 시즌 레딩으로 이적한 뒤 5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일찌감치 주축 공격수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던 만큼 감독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주전경쟁’의 높은 파도를 넘고 있는 이영표(30·로트넘)는 주말 아스널전을 통해 확실한 왼쪽 풀백으로서 자리잡기 위해 시험무대에 선다.

최근 3경기 연속 왼쪽 풀백으로 선발출전한 이영표는 ‘신예 수비수’ 가레스 베일이 왼쪽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공존을 해왔고, 또 좋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부상으로 빠졌던 미드필더 애런 레넌과 수비수 베누아 아소 에코토 등 왼쪽 측면 요원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어 험겨운 자리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칼링컵 2라운드에서 잉글랜드 진출 데뷔골을 쏘아 올린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15일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골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전 스트라이커보다 조커로 입지를 잡고 있는 이동국은 이번 웨스트햄전 역시 후반 교체출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짜릿한 한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밖에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는 조재진(26·시미즈)의 4경기 연속골 도전이 가장 관심거리다.

조재진은 15일 벤투코 고후와 홈 경기에서 또 한번 날카로운 골 감각을 앞세워 팀의 6연승을 이끌겠다는 각오 뿐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김정우(25·나고야)와 오범석(23·요코하마FC)은 각각 가시마 엔블러스전과 도쿄FC전에 나선다.

한편 취업비자 문제로 출국이 늦어지고 있는 이천수(26·페예노르트)는 빠르면 23일 에인트호번과 라이벌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안정환 ‘명예회복 출격’

한달만에 1군 선발로... 박주영은 불발



팬들과의 충돌로 벌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수원 안정환이 광주전에 선발 출격, 명예회복에 나선다. 넉 달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있던 박주영(서울)은 이번 주말엔 승을 고르기로 했다.

수원이 파죽의 6연승으로 판도를 뒤집은 가운데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7 21라운드도 15일과 16일 전국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후 5시에 열리는 광주와 수원의 수원별 ‘빅버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 2군 경기 도중 상대팀 서포터 야유에 격분, 관중석에 뛰어들어 벌금 1천만원을 내리는 징계를 받은 안정환이 출전하기에 더 그렇다.

차범근 수원 감독은 안정환을 분데스리가 출신 용병 예우와 투톱으로 내세워 ‘명예회복포’를 쏘아올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대의, 이관우가 좌우에서 화력을 지원하고 백지훈, 송종국이 뒤를 받친다.

안정환은 컵대회에서만 5골을 터뜨렸을 뿐 아직 정규리그 마수걸이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여만의 1군 무대 컴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감펍 킬러’인 광주의 전력도 만만치않았다. 지난 4월에 수원에 일격을 가한 경험이 있는 광주는 올림픽 대표 김승용과 남궁도를 전방에 내세워 수원발발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한편 시즌 중반까지 부동의 선두를 질주하던 2위로 떨어진 성남은 탄탄한 홈에 전력을 불려들여 ‘팬피언 대결’을 벌인다.

성남은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이고 전북은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다.

세종 FC는 서울 감독은 삼양밭에서 김호 감독의 대전을 맞는다.

김호 감독은 부상에서 거의 회복한 박주영을 엔트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리하게 투입하기 보다는 한 템포 더 쉬게 한 뒤 22일 전북전에 가동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신 역시 부상으로 떠나 있던 정조국, 이창용이 교체 멤버로 대기한다.

김호 감독은 고종수를 과감하게 선발로 예고했다. 최근 실전 감각이 부족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는 고종수다.

6위 컵트라이에 진입하기 위한 중화위권 팀의 불꽃튀는 대결도 기다리고 있다.

7위 포항과 9위 전남은 포항 스틸야드에서 ‘제철가 더비’를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계유도선수권 정경미 동메달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따내

정경미(22·용인대)가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78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 체급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정경미는 14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 7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양시울(중국)에 소매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뒀다.

이로써 2005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4회 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노메달에 그쳤던 한국은 첫날부터 메달 물꼬를 트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정경미는 체급별 5위까지 주어지는 베이징올림픽 출전 권투를 확보했다.

남자 100kg급에 출전했던 유광선(32·여수시청)은 1회전에서 프르제미슬라프 마티아체크(폴란드)에 빗당겨치기 절반으로 졌고 여자 78kg 이상급 김나영(19·용인대) 역시 테아 돈구자쉬빌리(러시아)에 연장 접전 끝에 발뒤축걸기 유효를 내줘 1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또 남자 100kg 이상급에 나선 홍성현(24·상무)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커크 호프만(미국)에게 유효승을 거둬 3회전까지 올랐으나 마틴 파드라(에스토니아)에게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져 탈락했다.

첫날 경기에서는 브라질, 쿠바, 프랑스, 중국이 금메달 1개씩을 획득했다.



## “금메달 먹었어”

쿠바의 유리셀 리보르데(오른쪽)가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첫날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일본의 나카자와를 꺾고 금메달을 따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이너리그 챔피언 서재응 승리투수

서재응(30)이 처음 등판한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호투하며 승리투수의 기쁨을 누렸다.

탬파베이 데블레이스 산하 더럼 볼소속인 서재응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의 더 다이아몬드 구장에서 열린 리치먼드 브레이브스(애틀랜타 산하)와 인터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 3차전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고 2실점했다.

서재응은 3-2로 앞선 8회 제프 리치웨이로 교체됐고 승부가 그대로 굳어져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사사구 없이 삼진 6개를 슈아냈다.투구 수 99개 중 스트라이크 66개일 정도로 제구력도 좋았다.

한편 더럼은 챔피언결정 3차전까지 2승1패를 거둬 리그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우안 투수 류제국(24)은 15일 열린 4차전에 등판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장애인체전 광주 7위·전남 최하위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란 슬로건으로 지난 10일부터 펼쳐진 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4일 폐막됐다.

김천 등 경북 일원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체전은 20개 정식종목과 22개 시범종목에 선수와 임원 4천명이 참가해 장애인체전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5개를 비롯

해 올림픽신기록 6개, 대회신기록 174개 등 풍성한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22개로 총 4만3천999점을 획득,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7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 대표단은 남동훈이 남자역도 -77kg급에서 대회 4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남자역



- 15일(토)
-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7:55·Xports),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10:55·Xports)
  - ▲SK 인비테이셔널 골프 2R(13:00·MBC ESPN)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 스포츠)
  - ▲FIFA 여자 월드컵 2007<브라질-중국>

- (21:00·SBS 스포츠)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턴-맨체스터Utd>(20:30·MBC ESPN), <위건-풀럼>(23:00·MBC ESPN)
- 16일(일)
-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시에나-AC밀란>(01:00·KBSN SPORTS), <발렌시아-비야돌리도>(03:00·KBSN SPORTS), <유벤투스-우디네세>(22:00·KBSN SPORTS)
  - ▲2007 PGA 더투어 챔피언십 3R(03:00·SBS 스포츠)
  - ▲최유삼 세계타이틀매치(WBO 인터넷

도의 최근진과 여자역도의 최속자도 3관왕에 올랐다.

또 이경대는 남자 육상 400m와 800m, 조미경은 여자불링 단·복식, 김영건은 남자탁구 단·복식, 우대성은 남자 수영 점영·배영에서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은 금 4개, 은 26개, 동 16개로 종합 점수 1만1천828점을 획득, 16개 참가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경기도가 1위, 서울시 2위, 개최지역인 경북도가 3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신지에 시즌 6승 보인다

SK인비테이셔널 1R 4언더파 공동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사상 최초로 시즌 6승과 삼구 4역원 돌파에 도전하는 신지에(19·하이마트·사진)가 제12회 SK인비테이셔널(총상금 4억원)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나섰다.

신지에는 14일 경기도 용인 88CC 서코스(파72·6천26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김하늘(19·엘리트), 김보미(25·이동수F&G), 이일희(19·KOMD)와 함께 공동 1위에 오른 신지에는 이날 버디와 보기 1개씩을 한 상황에서 9번 홀(파4) 버디에 이어 10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 선두권으로 뛰어 올랐다.

신지에는 약 27m(30야드) 거리에서 친 어프로치 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들어가 이글을 기록했다.

신지에는 “사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제저 퍼팅 연습을 7시간을 하고 샷 연습도 밤 10까지 했던 것이 무리였던 것 같다”면서 “그린을 크게 벗어나는 게 없었고 이글 잡은 뒤에 샷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그랬는지 마무리를 잘 했다”고 말했다.

신지에와 함께 김기현(30·KTF)은 보기 3개, 버디 1개로 2오버파 74타로 공동 50위에 그쳤고 역시 한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영(27)도 1오버파 73타로 공동 39위에 머물렀다.



지난 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흥진주(24·SK)는 버디 6개, 보기 4개로 2언더파 70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흥진주는 14번 홀(파4)에서 약 1m 거리의 홈을 파 퍼팅을 놓친 데 이어 16번 홀(파4)에서는 4m 정도 되는 파 퍼팅이 홀 바로 직전에 멈춰서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안선주(20·하이마트)는 버디 3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를 치며 공동 17위, 버디와 보기를 4개씩 기록한 지은희(21·캘러웨이)도 같은 순위로 1라운드를 끝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